

## 한국의 기독교 선교가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

### The Influence of Christian Missions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Korea

송 병 호\*\*

Byung-Ho Song

#### 국문요약

기독교에 대한 평가절하, 국민들로부터 소외현상을 보면서 “기독교가 한국사회에 도입된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기독교수용과정에서 수용요인으로 정치사회적 상황, 경제적 및 종교적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치사회적으로 서구열강의 개혁개방의 압박과 조약체결, 신식제도의 도입 등을 분석하였고, 경제적 상황으로는 세계사적 변화에 적응하고 신속하게 근대화의 문물을 수용하지 못한 나라의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피해 상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종교적 상황으로 천주교 도입과정의 탄압 상과 기독교 도입과정에서의 천주교 도입과정의 실패를 참조하여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였고 차츰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상황들을 설명하였다.

기독교가 조선에 미친 영향으로는 애국애민 정신, 적서차별 금지 및 신분제 타파 등 개화가 조선의 근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독교 수용의 근본 원인은 부국을 가능하게 하는 힘 있는 종교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힘없는 피지배계층으로부터

<http://doi.org/10.56475/ygsr.2024.29.1.69>

논문투고일 : 2024.05.06. 논문심사일 : 2024.05.21. 게재확정일 : 2023.06.04.

\* 본 논문은 백석대학교 교비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study was supported by Baekseok University's Academic Research Fund.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E-mail: sbhpol@bu.ac.kr)

Professor of Police Department, Baekseok University

지배계층까지 복음이 확대되어 가게 되었다. 한편 기독교는 3·1독립 운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기독교 선교에 따른 조선백성의 의식 변화를 독립협회지부 설치와 참여에의 적극성 차이 및 어느 양반의 고백 글을 통해 파악해 보았다. 또한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독립운동의 주체, 운동의 취지, 독립운동 행동방법 등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을, 3·1운동과 기독교 학교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독교와의 관계를 파악해 보았다.

끝으로 한국사의 격동기에 술한 선한 영향력을 미친 기독교의 침몰 현상 앞에서 우리 한민족이 역사를 알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주제어: 기독교, 기독교 선교, 기독교 학교, 31운동, 독립운동

목 차

I. 들어가며	IV. 기독교와 독립운동
II. 한국 선교 초기 시대적 상황	V. 결론
III. 초기 개신교의 영향	

## I. 들어가며

기독교를 연구하고 목회를 업으로 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독교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성도이자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독교 신자의 급감 현상 및 소위 ‘개독교’<sup>1)</sup>로 상징되는 기독교에

1) 개독교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개신교에 대한 멸칭으로 접두사 ‘개’는 기독교의 ‘기’를 대체해서 ‘개같은 기독교’ 혹은 ‘개념을 밟아 말아 먹은 기독교’의 의미로 부른다. 1970년대까지는 ‘꿀예수’ 혹은 ‘꿀예수’라는 표현이 이에 해당하였고, 2000년대 전까지 예수쟁이가 통용되었으나, 사실상 개독교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나무위키: <https://namu.wiki/>).

대한 평가절하 현상을 마주하면 안타까울 뿐이다. 2022년 한국리서치 종교인식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 신자 중 12%가 탈종교화하였고, 18~29세의 69%는 종교를 갖지 않은 것으로 젊은 층의 무신자율이 매우 높다(기독신문, <https://www.kidok.com>).

이 연구는 이렇게 기독교가 제 평가를 못 받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소외당해도 되는 종교인지?,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도입된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성과들을 끼쳐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일제식민지화의 길로 향하던 구한말, 기독교는 어떤 상황을 헤치고 도입되었고 어떠한 결실들을 맺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한국의 역사를 바로 아는 문제와 위기의 기독교 현실을 개선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생각이다.

기독교가 한국에 전해지던 시기는 이양선을 앞세운 서양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개척하고 문호 개방을 강요하고, 일찍이 근대화를 단행한 부국들이 약소국들을 지배하던 암울한 시기였다. ‘은자의 나라<sup>2)</sup>(Hermit Nation)’라 불렸던 조선은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선교사의 입국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오랜 유교적 전통과 봉건적 의식구조를 가진 조선에 기독교 도입은 수많은 갈등과 마찰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위정척사파, 개화파, 관리, 양반, 평민, 노비 등 각 소속과 집단에 따라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랐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구체제의 모순과 개혁개방에 따른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선교사의 파견을 거부할 수 없었고, 파견된 선교사들은 한국인의 교육 승상<sup>3)</sup>을

2) 한국은 1882년까지 서구 국가들과의 모든 종류의 교섭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기 때문에 ‘은자의 나라(Hermit Nation)’라고 불려 졌다(해리 로즈,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최재건 옮김, 연세대학교출판부, 2009: 1; 오주철(2023), “초기 개신교선교사들의 교육이 한국 근현대화에 끼친 영향”, 『한국학논집』, 제90집: 42 재인용).

3) 제임스 게일의 전환기의 한국(Korean in transition)에 의하면 중국인은 장사술에 능하고 일본인은 무술을 숭상하는데, 한국인은 교육을 숭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James

확인하고 교육과 의료사업에 집중함과 동시에 복음을 전수하게 된다. 오주철은 내한 선교사의 영향으로 오랜 유교적 바탕에서 전통적이고 폐쇄적이었던 이 땅에 국제사회를 보는 인식을 넓혀주었고, 나아가 전근대적인 문화를 극복하여 서구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오주철, 2023: 43). 선교사들이 전하는 기독교는 전근대적 신분제,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합리주의에 근거한 천부인권사상, 만민평등주의를 가르쳤고 한국의 근대화를 위한 중요한 매개체였다.

연구자는 첫째, 우리 역사상 기독교 도입기의 사회적, 정치적 및 종교적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정책과 그 성과들을 되짚어 보고, 특히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적으로 파악된 결과들을 중심으로 오늘날 사는 우리들이 기독교 선교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독교 위상을 제고할 방법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한국 선교 초기 시대적 상황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녔던 한국의 주변국 중국과 일본 상황을 통해, 한국 초기 선교 시 한국이 받은 영향과 한국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제국주의 경제침략에 대한 반발의 하나로

---

S. Gale, *Korean in transition*(서울: 한빛문고, 1983), 136-146; 오주철(2023), “초기 개신교선교사들의 교육이 한국 근현대화에 끼친 영향”, 『한국학논집』, 제90집: 42-43 재인용).

1840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1842년에 굴욕적인 남경 조약을 맺게 되었고, 뒤이어 여러 나라들과 강화 조약을 맺었다. 1890년에는 농민에 의한 비밀결사인 ‘의화단의 난’이 일어나 외국세력에 대한 민족적인 반항운동으로 부청멸양을 부르짖었으나 이에 대한 배상으로 열강에 의해서 중국은 분할되었고, 결국 1911년 신해혁명으로 수 천 년의 왕조체제는 몰락하였다(박향숙, 2018: 4).

한편 1854년에 개항한 일본은 1868년의 명치유신으로 서구의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부국강병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침략전쟁인 정한론을 주장하였다. 1889년에는 명치헌법으로 정치질서를 확립하고 새로운 경제사회정책을 펴나가며 부국강병에 힘을 썼다. 1894년 청일전쟁으로 태평양 중심의 제국주의 각축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팽창주의 노선을 걸었다. 1905년에는 러일 전쟁의 승리로 영국과 미국의 협력을 받으면서 조선 점령에 성공하였다(김민영, 1998: 11-12; 박향숙, 2018: 4 재인용). 이러한 주변국의 상황은 불가피하게 어찌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1. 사회 정치적 상황

한국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당시의 정치사회적 양상은 그야말로 혼란의 시기였다. 19세기 말 조선 사회는 세도정치로 사회 기강이 문란해지고 조선인의 경제생활의 주축인 농공상 등 평민층의 피폐와 빈곤으로 민란이 계속하여 발생하였다. 또한 기존의 사회질서 특히 신분질서를 거부하며 계급타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양식용, 2008: 5). 한편 이 시기는 산업혁명으로 대량생산에 성공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상품시장을 넓이기 위해 식민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쳐온 중국은 서구열강의 침투로 아편전쟁(1840년)으로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인 남경조약(1842)을 맺게 되고 수도인 북경까지 함락되게 된다. 자금성에 영국과 프랑스기가 계양되는 충격까지 경험하자 중국에서는 서양의 것을 배우자는 양무운동<sup>4)</sup>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2차 아편전쟁 이후 체결된 북경조약(1860년)에는 ① 서양의 외교사절이 북경에 상주할 수 있게 할 것, ② 남경조약 때 5개 항 외에 10개 항구를 추가 개항할 것, ③ 외국인의 중국 내륙지역 여행 권리를 인정할 것, ④ 크리스티교 선교의 자유를 인정할 것 등이 포함되었다.

한편 대원군 집권기 조선의 사정은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 서양의 이양선이 연해에 자주 출몰하고,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공격으로 베이징이 함락 청나라 함풍제(咸豐帝)가 피난 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기감이 확산되었다. 또한 영불과 청의 강화를 증재한 러시아<sup>5)</sup>가 그 대가로 연해주를 획득하게 되면서 조선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대원군은 프랑스를 끌어들여 했지만 실패하였고 청나라에서 천주교 탄압 소식이 들려왔고 조정에서도 천주교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자 대원군은 병인박해<sup>6)</sup>를

4) 양무운동이란 1861년부터 1894년까지 중국 청(淸)나라에서 진행된 자강(自強) 운동이다. '양무(洋務)'란 다른 나라와의 외교 교섭에 관한 사무를 뜻하는 말이지만, 넓게는 서양의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쓰였다. 따라서 양무운동이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군사적 자강과 경제적 부강을 이루려 했던 여러 정책들과 사회적 변동들을 나타낸다(두산백과 두피디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

5) 2차 아편전쟁의 최대의 수혜국은 러시아였다. 러시아는 중국과 1858년 '아이훈 조약'을 체결하여 외흥안령과 흑룡강 사이의 60여만 제곱미터를 할양받고, 1860년에는 '북경조약'으로 우수리강 동쪽 4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연해주를 얻게 되었다(<https://blog.naver.com/>).

6) 병인박해(丙寅迫害)는 1866년(고종 3년)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 정권에 의해 벌어진 대규모의 천주교 탄압을 말한다. 병인사옥(丙寅邪獄)이라고도 하며, 1872년까지 6년간 진행된 탄압으로 당시 8,000여 명 이상의 평신도와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출신의 선교사 등을 처형한 사건이다(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단행하였고,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 세우는 쇄국정책<sup>7)</sup>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산업화와 근대화를 일찍이 단행한 국가가 비 근대화된 국가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1870년 초 척화와 쇄국의 흐름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황제국화선언, 조선 정부의 일본 측 외교문서 서식문제, 이에 따른 정한론<sup>8)</sup>의 대두, 고종의 친정 등으로 차츰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었다.

박향숙(2019: 45)은 당시 우리의 사정을 “열강의 침투 및 조정의 부패는 날로 극심해져 한국 사회는 앞날을 알 수 없었으며 백성들은 병들고 굶주려 희망도 없었고 기독교와 서구문화에 대하여 불신과 의구심이 가득하였다. 또한 백성들은 무식하고 억압당하는 백성들이 의지하고 기댈 곳은 미신뿐이었고 양반 상민의 구별, 여자에 대한 차별 대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문호 개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국제적으로 1875년 운양호사건<sup>9)</sup>과 그로 인해 이듬해 한일 간에 맺게 되는 강화도조약으로 조선은 쇄국정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다. 강화도조약은 한국이 중국 이외의 그 어떤 나라와도 외교관계를 맺을

7) 쇄국정책은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문호를 닫고 서양과 통상하지 않았던 대외정책이다.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지 않고 문호를 닫아 서로 통상하지 않는 정책을 말한다. 주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의 대외정책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 또는 통상 거부 정책으로 고쳐서 표현하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

8) 정한론이란 위의 서계문제로 조선과 갈등이 발생하자 메이지 유신의 주역인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1828~1877)는 직접 조선으로 가서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결렬 시 조선을 정벌하겠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조선정벌을 주장하는 계획을 말한다. 정한론은 당시 정부안 채택되었지만, 해외 시찰을 마치고 귀국한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등이 내치 선결을 내세우며 정벌계획을 취소시키며 당시에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1875년(고종 12) 운양호 사건으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 체결에는 일본의 정한론적 인식이 내재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9) 운양호사건이란 1875년 9월 20일 일본군함 운양호(雲揚號)의 강화해협 불법침입으로 발생한 한일 간의 포격사건을 말한다(<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

수 없었던 관행을 깨고 중국 이외의 제3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어쩔 수 없이 개항되었지만 당시 조선 사회는 전통적인 국가의 방침인 쇄국을 고수하는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와 개국을 통한 부국강병을 주장하는 개화파(開化派)로 나뉜다. 개화파는 다시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파와 온건개화(동도서기<sup>10</sup>)파로 나뉜다.

급진개화파는 ‘개화당’이라 하는데 이들은 1870년대 조선 후기 실학사상과 박규수, 오경석, 유흥기 등이 형성한 초기 개화사상을 바탕에 두고 중국을 통해 수용한 서구 문물 등을 공부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등을 중심으로 현실 정치에서 개화사상을 실현하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형성한 정치세력을 말한다. 이들 개화당은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고자 1884년 12월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한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 한편 온건개화파는 김홍집·어윤중·김윤식·이조연 등을 중심으로 부국강병을 위해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실현하되, 기득권세력인 민씨 일파와 타협하면서 기존의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서양의 근대 과학기술 문명을 받아들여, 점진적으로 개혁을 수행하자는 입장을 취하였던 정치세력을 말한다(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조선의 개화는 시기적으로 1876년 개항으로부터 국권을 상실당한 시기까지이며, 그 의미는 다양하지만 개국(開國)이란 ‘해외에 대한 지식을 배울 것’, ‘외국기술을 받아들여 부강한 국가를 만들 것’,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양식용, 2008: 6). 그리고 이 시기에 갑오개혁, 을미개혁,

10) 동도서기(東道西器)는 동양의 도덕, 윤리, 지배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발달한 기술, 기계를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룩한다는 사상이다.



광무개혁 등 조선의 기존 질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많은 개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한편 강화도조약으로 문호가 개방된 이후 1882년 미국을 선두로 영국과 독일 그리고 1884년에는 이탈리아와 러시아, 1886년에는 프랑스와 조약을 맺게 되었다. 그 결과 빗장이 열린 조선으로 서구의 문물이 물밀듯 들어오게 된다.

1882년 조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개신교 선교에 중대한 전기가 마련된다. 미국과 조약체결 이후 외교관으로 미국 등 서구세계를 견학하고 돌아온 민영익(1860-1914)은 신식학교 및 새로운 교육제도의 도입을 조정에게 건의하였다(오주철, 2023: 45). 당시 일행이 만난 미국인 중에는 조선 선교에 관심이 커 다양한 경로로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우연히 기차 안에서 조선대표단은 가우처대학 총장 가우처(Johgn F. Goucher)와 조우하게 되는데 그는 감리교 목사이며 일찍이 조선 선교를 꿈꾸던 사람이었다고 한다. 가우처 총장은 재(在) 일본 감리교 선교부 대표였던 맥 클레이(Robert McLay)에게 조선을 방문하여 선교 사업을 착수하면 좋겠다는 편지를 보냈고, 맥 클레이는 일본에서 알고 지냈던 김옥균(1851-1894)을 만나 고종황제에게 전하는 선교 요청 서한을 전달하게 된다(오주철, 2023: 45). 유동식에 의하면 김옥균으로부터 서한을 전달받은 고종은 다음날 “한국에서 선교부가 병원과 학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허락을 하게 된다.

그 와중에 조선에서의 세력균형의 유지를 위한 청일전쟁과 러·일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국토가 유린당하는 수난을 안겨다 주었다. 특히 청일전쟁은 한국인의 사상적 방향을 동양에서 서양으로 전향케 하였다. 한편 민족의 수난기에 한국 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당시 교회가 힘없고 핍박받는 민중의

도피처로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경제적 상황

기독교 수용과정 상 조선인의 경제사정은 한마디로 경제파탄에 따른 국민불안으로 진단할 수 있다. 박종근(1982: 27)에 의하면 1876년의 개국 이후 외국 열강의 침입으로 농민경제의 파탄을 가져왔다고 한다. 한편 서구열강의 쟁탈전 속에서 조정도 외국세력에 의존하여 존립을 꾀했기에 국가재정의 궁핍도 심해져 갔다(김재곤, 2009: 31). 이기백은 면세, 진항, 은결<sup>11)</sup>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는데, 개항 후 외교사절 접대, 배상금 지불, 현대식 문물의 도입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여 국가의 재정이 궁핍해지자 농민에게 이중, 삼중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니 불평으로 금방 폭발할 것 상태였다고 한다(이기백, 1976: 334-335; 김재곤, 2009: 31 재인용). 한편 양반,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학농민혁명의 직접적인 불씨가 된 고부군수 조병갑을 들 수 있다. 1892년 말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소위 ‘만석보(萬石洩) 수세징수사건’으로 동학운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는 기회 있는 대로 갖가지 명목으로 수탈을 자행하였는데, 농민에게 면세를 약속하고 황무지 개간을 허가하고도 추수기에 강제로 수세(收稅)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민(富民)을 체포하여 불효·불목·음행·잡기 등의 죄명을 씌워 그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것만도 2만여 냥(兩)에 달하였으며,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강제로 거둔 돈이 1,000여 냥이나 되었고, 대동미를 정미(精米)로 받는 대신 돈으로 거두고 그것으로 질이 나쁜 쌀을 사서 상납하여 그 차액을 착복”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

11) 은결(隱結)이란 조선시대에 탈세를 목적으로 전세(田稅)의 부과 대상에서 부정·불법으로 누락시킨 토지를 말한다(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

이렇게 일반 백성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도적들이 날뛰고 이후 외세의 침략으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아픔까지 당하게 되니 마음 둘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 3. 종교적 상황

한국인의 문화와 종교를 얘기할 때 조선시대를 지배한 ‘성리학’, 오랜 역사를 한민족과 함께한 토착신앙인 ‘샤머니즘(무속신앙)’, 고대국가와 함께하고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불교’ 등을 언급하지만, 기독교를 언급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에 따르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종교는 다양하며, 무종교의 비중이 절반에 달한다.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신앙을 가진 국민 즉 신자(信者)는 기독교나 불교가 많고, 기독교인의 경우 약 2/3은 개신교, 1/3은 천주교이며, 인구의 약 1%가 원불교이며, 유교, 천도교, 대순진리회, 이슬람교 등의 다양한 소수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조선에 가톨릭이 처음 전해진 것은 명나라 사신이었던 이수광(1563-1628)이 중국에서 선교하던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 신부의 『천주실의(天主實義)』, 『중우론(重友論)』 등을 그의 저서 『지봉유설(芝峰類說)』에 소개한 데서 비롯됐다고 한다(양식용, 2008: 14). 하지만 이것은 소개에 그쳤고 실질적인 천주교 도입으로 보기 어렵다. 1783년 조선정부로부터 중국에 동지사(冬至使)로 임명된 부친을 따라 베이징으로 간 이승훈이 예수회 신부 그라몽(梁棟材)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조선 최초의 영세(領洗)신자가 되고, 귀국 후 같이 공부하던 동료인 권일신, 정약중, 정약용, 이벽 등에게 세례를 준 것이 실질적인 천주교 도입으로 본다(양식용, 2008: 15-16). 이렇게 도입된 천주교는 진산

사건과 신해박해<sup>12)</sup>에서 보듯 당시의 유교적 전통과 많은 갈등이 있어 쉽게 정착하기 어려웠다. 1801년 신유박해(辛酉迫害), 1839년 기해박해(己亥迫害), 1846년 병오박해(丙午迫害), 1866년 병인박해(丙寅迫害) 등 천주교의 대표적 박해사건들이 조선 사회의 기독교 정착 과정을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기독교의 도입은 시기와 방법을 달리하였는데, 가톨릭의 참혹한 수난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 선교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미국 장로교 선교부는 1882년 조·미수호조약과 1883년 조·영수호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조선에 파송 방침을 세우고 중국 상해에 머무르던 알렌을 파송기로 했다. 알렌이 서울에 파송되었지만 그때까지 국내 선교가 금지된 상태라 정식 선교사 자격이 아니라 미국 영사관의 공의(公醫)의 신분이었다고 한다(양식용, 2008: 35). 하지만 알렌은 갑신정변으로 목숨이 위협했던 민영익(閔泳翊)을 치료해 준 인연으로 고종과 민비의 총애를 얻어 벼슬을 하사받음은 물론 병원설립을 허가받아 광혜원(廣惠院)을 설립하여 많은 환자들을 서양의 새로운 의술로 치료했다.

하지만 알렌은 조선에서의 선교 방법으로 언더우드와 갈등하게 되었다. 알렌은 엄격하게 조선국법을 준수하자는 입장인 반면 언더우드는 다른 입장이었다. 언더우드가 한국인에게 세례를 주자, 알렌은 조선 정부를 자극하여 선교 사업이 위협에 빠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선교 사업”이 아니라고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언더우드는 알렌에게

12) 진산사건과 신해박해란 1791년(정조 15년)에 가톨릭교도였던 윤지충(尹持忠)과 권상연(權尙然) 등이 제사를 거부하고 부모의 신주를 불태운 사건인데, 조정에서는 진산군수(珍山郡守) 신사원(申史淵)을 시켜 두 사람을 체포하여 심문한 결과 조상숭배 및 부모와 군주를 신뢰하지 않는 등 사회도덕을 부정한다고 하여 사형에 처한 박해사건이다(두산백과 : <https://terms.naver.com/>).

“선교 역사에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조약상 선교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선교를 감행했고, 박해순교를 각오하는 자들의 세례를 거절할 수 없으며, 병원과 학교와 같은 현재의 선교 사업은 정부 감독하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위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자원하여 세례받기를 요청하는 자에게 목사요 선교사로서 세례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선교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장했다(옥성득, 1998: 149).

시대적 격변기에 조선 백성들은 전통 종교의 모순을 극복하며 종교적, 정신적 안정을 기독교에서 찾았고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독교 보급도 확대되어 갔다. 김재근(2009: 19~20)은 1898년 조정이 스왈론(S. L. Swallon)에게 호조(護照: 자유여행권)를 발행하여 선교활동의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조선에서의 선교의 자유가 부여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있어도 즉각적으로 선교활동이 전개되지는 못하였고 선교활동에 앞서 의료사업과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Ⅲ. 초기 개신교의 영향

개항 이후 서구와의 통상 등 교류에 따른 대응역량을 키워야만 했다. 당시 정부는 영어교육을 위해 ‘동문학(同文學)’을 설립하였고, 외교력을 위해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하였다. 당시 육영공원은 현직관리나 고관자제를 대상으로 영어와 서양교과목을 교육하였다. 하지만 육영공원의 학생들은 이미 현직이며 관료로 성장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아 결국 폐지되기에 이른다(류방란, 1998; 오주철, 2023: 50).

개신교 선교사들은 조선에 대한 선교 사명의 실천을 학교를 선교의 발판으로 삼아 기독교를 전파하고 서구식 교육을 통해 기독교 지식인을 양성하고자 하였다(오주철, 2023: 50). 고종이 직접 교명을 하사한 배재학당<sup>13)</sup>을 개교한 아펜젤러는 영어교육을 받고 관직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어뿐만 아니라 교양교육을 통해 기독교를 전파하였다. 한편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교육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의 필요성에서 개교한 이화학당(梨花學堂)이 있다. 이화학당을 개교한 메리 스크랜턴은 한국여성의 여권신장과 그리스도 교훈을 통한 기독교적 생활을 익히는데 두었다. 또한 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심을 두고 이들을 가르쳐 기독교 지도자로 양성하고자 언더우드가 설립한 언더우드학당<sup>14)</sup> 등이 그것이다.

## 1. 피지배계층과 지식계층의 개신교 수용

조선 사회를 이끌어 왔던 신분제와 지배원리였던 유교 질서가 조선 후기 탐관오리의 횡포, 삼정의 문란 등으로 민란,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고 특히 개항과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으로 급격히 밀려드는 외세에 조선의 힘없는 백성들은 목숨과 생계를 의지할 힘 있는 무엇인가를 찾게 되었다. 일제가 러일전쟁의 전리품으로 러시아로부터 받은 사할린 개발을 위해 조선인을 강제로 이주시킨다는 소문이

13) 배재학당(培材學堂)이란 “좋은 인재를 길러낸다”는 의미로 1887년 고종이 직접 교명을 하사한 학교를 말한다.

14) 언더우드 학당은 미국 초대 선교사 언더우드(Underwood, H.G.)가 설립한 학교로 1885년 4월 5일에 입국한 언더우드는 광혜원(廣惠院)에서 화학(化學)과 물리학(物理學)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면서 당시 조선의 고아 등 불우한 아이들의 처지를 보고 이들에게 기술교육은 물론 목회자로 양성하기 위해, 1886년 고아원 형식의 학교를 창설함. 이 학교는 오늘날의 경신중·고등학교의 전신이다(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

퍼지면서 일반민중의 기독교 입교는 더욱 증가하였다(안재근, 2003: 19). 당시 교회는 외국인 소유의 치외법권 영역으로 인식되어 기독교는 날로 세력을 확산해 갔다.

한편 지식층의 경우 조선의 문호개방과 서구열강의 식민지 개척시도 앞에서 조선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력을 키우고 서구에 대항할 길을 모색해야만 하였다. 유교사상으로 성립된 양반관료들의 저항도 있었지만 개화를 통한 구국의 일환으로 기독교를 받아 들였던 것이다. 당시 독립협회를 창설한 서재필과 윤치호 등은 개화파 지식인으로 갑신정변의 실패로 외국으로 망명하였다가 기독교에 입교하고 귀국한다. 이들은 독립신문과 독립문 건축 등의 활동은 관료의 부정부패, 중국 중심의 모화사상을 배격하는 의미로 당시 민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된다.

이는 선교 초기 부모도 없고 군주도 없는 종교, 야만인의 종교로 인식되었던 기독교가 국가를 튼튼히 하며 힘 있는 종교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 2. 기독교와 애국애민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민권운동이 확대 하자 기존 기독교세력은 위기감을 느끼고 보부상을 동원하여 황국협회를 조직하고 양 조직은 무력 충돌 사태까지 갈등하였다. 이에 고종은 양 단체를 해산하고 주모자들을 체포한다. 하지만 옥중에서도 성경공부는 계속되었고 석방 후에도 더 많은 개종을 이끌며 조선인의 역사적 현실에서 개혁을 통한 근대화에 자양분으로 기여하였다. 주재용(1998: 29)에 의하면 당시 그리스도교는 개화라는 정치적 동기로

수용되었고 의료,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과감한 사회개혁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성장하였다고 한다. 한영제의 『한국기독교 문서운동 100년』에도 당시 기독교신문에는 단순히 교회의 소식만이 아니라 개화, 민주주의, 서구문화, 정치 등을 다루었고 특히 충군애국(忠君愛國)을 바탕으로 하여 민족운동의 기본 바탕이 되었다고 한다(한영제, 1987: 21). 한편 한국교회100주년편집위원회 사료분과위원회는 한국교회는 신도들이 단순히 내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성격의 종교가 아니라 선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문명을 발전시키고 민족적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애국사상을 바탕으로 한다고 진단한다(한국교회 100주년편집위원회 사료분과위원회, 1984: 182~183).

### 3. 민주주의와 신분질서 변화

근대화 이전의 조선은 양반, 중인, 상인, 천민 등 엄격한 신분제로 운영되는 사회였다. 자질과 능력이 아니라 소속된 신분집단에 따라 직업뿐만 아니라 사람취급을 받지 못하는 환경이 정해지는 시기였던 것이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기독교 복음을 바탕으로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자, 그동안의 신분질서에 서서히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복음을 공유하는 교회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이며 서로 차별 없는 형제요 자매인 것이다. 이를 당시 피지배계층인 민중들에 기독교는 ‘인간화의 종교’이자, ‘사람을 대접하는 종교’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오주철, 2023: 67-68).

기독교는 백정<sup>15)</sup> 신분해방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시의

15) 백정은 오늘날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장인 또는 백장이라고도 불리는데, 역사적으로 의미가 다르다. 고려시대는 특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지 못하고 토지를 경작하는 일반농민을 의미하였고, 조선의 백정은 호적(戶籍)에서



백정은 기왓집에 살 수 없으며, 명주옷을 입지 못하고 망건도 쓰지 못하며, 외출 시 상투도 틀지 않고 평량자를 써서 자신의 신분을 알려야 했고, 호구조사 제외, 죽어도 상여 사용금지, 묘에 떼를 입히지 못하는 등 사람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오주철, 2023: 68). 선교사 사무엘 포먼 무어의 활약으로 한국 최초의 백정 출신 장로가 된 박성춘과 아들 박서양이 대표적 신분해방 사례로 들 수 있다.

무어는 1892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내한하고 1893년 6월 곤당골 교회(현 승동교회)를 설립한다. 그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다”며 죽어가는 백정을 위해 왕의 주치의에게 부탁하여 왕진치료로 목숨을 구해주기까지 한다. 이때 목숨을 건진 사람이 백정 박가(박성춘, 1862~1933)이며 관자골에 산다고 해서 ‘관자골 박가’로 불렸는데, 그는 무어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새봄을 찾았다는 뜻으로 성춘(成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이후 무어 선교사와 함께 백정신분해방운동을 하였고 1만여 명의 백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과를 낸다(오주철, 2023: 68). 한편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박봉출로 불리었지만 상서로운 태양이라는 뜻으로 서양(瑞陽)이라는 이름도 얻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의사가 되었으며, 간도로 이주하여 구세의원과 송신소학교를 세우고 항일투쟁을 펼쳐 2008년 국가로부터 독립운동유공자로 추서되게 된다. 이렇듯 기독교는 조선 사회의 기존계급 및 신분질서로부터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이다.

---

제외된 천민계급으로 가축류의 도살을 주업으로 하는 한편 부업으로 유기(柳器: 고리)를 제작하는 신분을 일컬음(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 IV. 기독교와 독립운동

### 1. 선교와 한민족의 의식변화

서양의 제국주의 흐름을 타고 뻗어나간 기독교 선교로 기독교를 서양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보는 일부 학자들도 있지만, 박정신은 “구한말 기독교 민족주의 논의”에서 우리 민족의 적은 기독교를 전해준 서양이 아니라 비기독교국가인 일본이며, 일제 식민지시기에 전국적 조직공동체로 등장한 교회가 ‘우리 민족의 정보의 장’, ‘만남과 위로의 장’, ‘사회정치적 결사체의 장’으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서양 제국의 앞잡이 주장은 물(沒) 역사적 시각이라고 한다(박정신, 2004: 228-229).

그는 독립협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협회창설 후 전국에 공주, 평양, 선천, 의주, 강계, 북청, 대구, 목포 등 8개 지부가 설치되었는데,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등 다른 대도시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들 지역민의 요구와 열성을 들고 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새 문화, 새 교육, 새 사회, 새 정치운동을 펼치는 공동체로 인식하였기에 기독교가 다른 곳보다 일찍이 정착하고 발전한 위 8곳에 지부가 설치되게 되었다.

한편 기독교공동체가 당시의 조선 사람들에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 박정신은 첫째, 기존의 유교적 신분사회와 이념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이 강하지 않은 평민과 하층민들에게는 기독교라는 새로운 개종으로 평등의식 및 신분상승의 의미가 있었다. 둘째, 서양 문물의 우수함을 체험하고 개혁개방으로 전쟁의 승리를 이끈 일본의 야망을 인식한 양반층도 유교적 조선을 개혁하여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기독교공동체로 들어왔다는 것이다(박정신, 2004: 237). 무어

선교사가 옮긴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한 양반의 고백문은 기독교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반증한다(박정신, 2004: 239 재인용).

“넉 달 전 나는 사랑방(예배처소)에 있는 것이 부끄러웠다. 교인들이 모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는 기분이 매우 언짢아 편히 앉았었지만, 얼마 후 나도 무릎을 꿇기 시작했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는 마음을 주신 것이다. 내 친구들은 내가 미쳐버렸다고 말하면서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미쳐버린 징조가 아니다. 사실 나는 양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는 양반으로, 또는 어떤 이는 상놈으로 만드시지 않았다. 인간들이 그러한 구분을 지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시었다.”

즉,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하고 기존의 삶과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교회, 학교 및 여러 사회기관들에서 예배, 기도회, 성경공부모임, 연설회, 토론회 등 공중집회, 자치활동들이 증가하고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한 식견들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사회운동, 교육운동 및 문화운동의 자양분으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 2. 기독교와 독립선언서

선교사가 전수한 기독교는 급격한 변혁기를 맞이한 한민족에게 많은 혼란과 개혁거리를 안겨주었다. 일본의 군국주의와 대륙침공의 희생물이 된 조선에서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이 진행되었다. 김용복(2019)은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주체, 운동의 취지 및 행동방법 등의 특징을 중심으로 기독교인이 주도한 것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공동 참여한 것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김용복, 2019:

147). 기독교인이 주도한 독립선언서로는 ‘독립단통고문(獨立團通告文)’, ‘시사진술서(時事陳述書)’, ‘대한독립여자선언서(大韓獨立女子宣言書)’ 등이 있고, 공동선언서에는 ‘2·8독립선언서’, ‘3·1독립선언서’, ‘조선 독립선언서’ 등이 있다.

먼저 기독교인들이 1919년 3월 전단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독립단원에게 통고한 선언서로 ‘독립단통고문(獨立團通告文)’이 있다. 이 통고문은 독립운동의 태도와 방법으로 폭력사용을 금지하고 운동방법으로 신앙행위 지침을 담고 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 아뢰고 간구하여 독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물론 독립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운동방법상의 비적극성 등이 지적될 수 있지만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의 독립염원이나 의지할 곳이 기독교였음을 반증하기도 하다는 평가다.

또한 1919년 5월 상해에서 기독교 대표들이 발표된 ‘시사진술서(時事陳述書)’가 있다. 이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 김규식의 활동을 지원하고 세계장로교연합회 및 미주 각 교회에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용복, 2019: 150-151).

다음으로 대한독립여자선언서(大韓獨立女子宣言書)는 1919년 만주에서 기독교 여성들에 의해 필사하여 여성들에게 보급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제의 폭거를 규탄하고 비록 여자지만 일제의 만행에 항거하여 일어날 것을 촉구하였다. 국가의 어려움에 희생하고 헌신한 여성들 스파르타의 사리부인, 이태리 메리아부인, 논개와 화월 등을 언급하며 용감하게 나설 것을 주장하였다(김용복, 2019: 152-153).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독립선언서는 많고 거국적 민족운동으로 큰 영향을 끼쳤는데, 먼저 2·8독립선언서가

있다. 이는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직한 ‘재일본도쿄조선독립청년단’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이 선언서는 조선의 속국화(屬國化)에 따른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일본의 각성 및 국제적 보장을 요구하였다. 특히 2·8독립선언서<sup>16)</sup>의 마지막 문장, 즉 일본이나 혹은 세계 각국이 우리 겨레에게 민족 자결의 기회를 주기를 요구하며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겨레는 생존을 위하여 자유행동을 취하여서 우리 겨레의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하노라. 고하여 독립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한편 독립선언서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영향력도 컸던 선언서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발표된 3·1독립선언서가 있다. 이 선언서에는 독립선언의 목표, 근거, 방법 및 입장이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행동강령까지 첨부하고 있다. 김용복에 의하면 3·1독립선언서에 천명된 보편적 가치를 요약하면 생존권(生存權), 민족적(民族的) 존영(尊榮), 민족적(民族的) 양심(良心), 독립(獨立), 정의(正義), 인도(人道), 자기(自己) 건설(建設), 원화소복(遠禍召福), 평화(平和), 도의(道義)의 시대(時代), 자유권(自由權), 진리(眞理), 부활(復活) 등이라 한다(김용복, 2019: 157).

또한 1919년 3월17일 러시아 니콜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표된 “조선독립선언서”(朝鮮獨立宣言書)는 특별히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작성된 것으로 자유, 평등, 서구 민주주의 등이 기독교를 통해 수입되었음을 지적하고, 일제가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압박하고 탄압했다는 사실을 규탄하고 있다(김용복, 2019: 161).

16) 나무위키: <https://namu.wiki/w/2.8독립선언서> 참고.

### 3. 3·1운동과 기독교학교의 역할

기독교인의 독립운동에 대한 한계점을 교단 차원의 적극적 참여와 비정치성 및 내면적 신앙 강조 단계에 머문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김용복, 2019: 163-169). 하지만 3·1운동은 한국교회와 함께 ‘기독교 학교’가 주축이 된 운동이었으며, 당시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있던 기독교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각 지역마다 3·1운동을 확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박상진, 2019: 14).

박상진은 이만열의 논문을 인용하여 1911-12년에 한국장로교회는 650여 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1만 4,400여 명에게 신앙과 민족 교육을 하고 있었으며, 이들 교육받은 학생들이 3·1운동의 인적 토대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박상진, 2019: 15). 한편 최재건도 3·1운동의 전국적 확산에는 교회들과 교회가 세운 학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최재건, 2018: 15). 1885년 감리교 여선교사 스크랜턴(MF. Scranton) 여사가 세운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은 1887년 명성황후로부터 이화학당이라는 교명을 받아 한국여성의 무지와 속박으로부터 해방과 복음전파의 소명으로 운영되었고, 훗날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치만은 특히 기독교학교의 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고 수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일본헌병경찰에 체포된 여학생과 여성들은 시위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전라의 상태에서 구타당하는 등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이치만, 2018: 213).

3·1운동은 일제의 강제적 식민지화에 항거하여 1919년 3월1일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시작하여 그 이후 약 1년에 걸쳐 우리나라 전역과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이다. 3·1운동 초기 단계는 독립선언문이 작성되고 이것이 태화관과 탑골공원에서 선포되는 과정이며, 그 확산 단계는 이러한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 일제에 항거하는 민족독립운동이 펼쳐지는 단계인데, 박상진은 이 두 과정에 있어서 기독교학교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였지만, 특히 ‘확산 단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있던 기독교학교들이 큰 공헌을 하였다고 한다(박상진, 2019: 13-14).

박혜진(2015)의 일제하 한국기독교와 미션스쿨에 의하면, 1890년을 전후해서 선교사들, 한국의 토착교회나 교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영향을 받은 개인들이 전국 각 지역에 기독교학교들을 설립하였고, 전국적으로 설립된 이들 기독교학교들이 3·1운동의 지역별 진원지가 되었다고 한다(박상진, 2019: 16-19).

그런데 3·1운동에 기독교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그리고 큰 희생을 감수하고서까지 참여할 수 있었는가?하는 의문이다. 즉, 3·1운동의 원동력이 된 기독교학교 교육의 실체를 파악해야만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박상진은 1900년대를 전후하여 설립된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은 복음전파를 통한 선교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민족교육을 추구하였음을 강조한다(박상진, 2006, 134-160). 이는 교회를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찾았다는 측면과 연결되는데, 조선인을 식민지로 권리와 자유가 사라진 현실에서 구국과 민족의 생존을 위한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3·1운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은 그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역사이며, 고난에 항거하고 불의에 대항하여 마침내는 승리한 역사적 기록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경학습은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조선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요구하는 3·1운동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독교학교의 비교과교육도 독립운동과 연결되는데, 대표적으로 당시의 체육교육은 군대식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학생들은 목총을 메고 나팔과 북을 갖춘 악대의 연주에 맞춰 행진하는 교련과 체력훈련을 하는 군대식 훈련을 받았고, 이러한 체육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키웠다고 한다(박상진, 2019: 29).

## V. 결론

이상에서 한국의 개신교 수용과 그 의미 및 영향력을 특히 독립운동과 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기독교 수용과정에서 수용요인으로 정치사회적 상황, 경제적 및 종교적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치사회적 상황에는 서구 열강의 개혁개방의 압박, 이에 대응하는 식자층과 기득권층의 분열, 수차례의 개혁 시도 및 열강과의 조약체결과 신식제도의 도입 등을 수용요인으로 언급하였다. 경제적 상황에는 세계사적 변화에 적응하고 신속하게 근대화의 문물을 수용하지 못한 나라의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피폐상황을 수용요인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종교적 상황으로 천주교 도입과정에 따른 정부 탄압의 경험에 따라, 기독교 도입은 교육, 의료사업 등 다양한 방법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상황들을 설명하였다.

한편 이렇게 도입된 기독교는 힘없는 피지배계층인 백성으로부터 지배계층까지 복음이 확대되어 갔는데 그 요인은 부국을 가능하게



하는 힘 있는 종교로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기독교는 애국애민 정신, 적서차별금지 및 신분제타파 등 개화기 조선의 근대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선교와 독립운동에의 영향으로 첫째, 선교에 신분제 폐지, 평등의식강화 등 의식변화에 가져온 점, 둘째, ‘독립단 통고문’, ‘시사진술서’, ‘대한독립여자선언서’, ‘2·8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 ‘조선독립선언서’ 등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선언과 행동지침들에서 그 영향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학교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독교와의 관계를 파악해 보았다.

이렇게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기에 도입된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미친 숱한 개혁들을 보면서 도입부에서 언급한 오늘날의 개독교가 난감할 따름이다. 3·1운동 당시 항일, 구국운동에 참여한 기독교학교 학생들은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복음을 통해 참 진리를 깨닫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지도자로 양육되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독립문제가 없고, 신앙의 자유가 확립되었기에 당시와 같은 역할과 중요성이 없는 것일까?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신앙교육의 약화를 지적하기도 한다(박상진, 2019: 40). 또한 기독교학교 교사의 소명과 영성부족 등도 지적되지만 기독교 학교를 떠나 사회, 전반적으로 오늘을 사는 국민들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고 누구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끝으로 이 논문은 한국개신교 선교 초기의 도입과정과 그 영향에 대한 제한적 연구이며 3·1독립운동과의 연계 부분도 많은 한계를 가짐을 지적하면서 추후 다양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며 논문을 맺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민영(1998), 『한국초대교회사』, 쿤란출판사.
- 김용복(2019),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기독교 정신 재검토」, 해암신학연구소, 『신학과 교회』, 11.
- 김재곤(2009), 「한국에서의 개신교 수용과정과 영향」, 평택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방란(1998), 「개화기 배재학당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사학회, 『교육사학연구』, 8.
- 박상진(2006), 『기독교학교교육론』, 예영.
- \_\_\_\_\_ (2019), 「3·1운동에 있어서 기독교학교의 역할과 오늘날의 과제」, 한국기독교교육학회, 『기독교교육논총』, 58.
- 박정신(2004), 「구한말 기독교 민족주의논의」,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8.
- 박종근(1982), 『동학혁명의 연구』, 백산서당.
- 박혜진(2015), 『일제하 한국 기독교와 미션스쿨』, 경인문화사.
- 박향숙(2018), 「한국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정책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근(2003), 「초기 개신교에 나타난 민족운동 고찰」,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식용(2008), 「구한말(舊韓末) 선교사들의 교육·의료활동」,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주철(2023), 「초기 개신교선교사들의 교육이 한국 근현대화에 끼친 영향」, 『한국학논집』, 90.
- 육성득(1998), 「한국 장로교의 초기 선교정책(1884~1903)」, 한국기독교

- 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와 역사』, 9.
- 유동식(2009),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I』, 도서출판 KMC.
- 이기백(1976), 『한국사신론』, 일조각.
- 이치만(2018), 『3·1운동에서의 장로교의 역할과 1440프로젝트』, 한국기독교학회, 『3·1정신과 교회의 미래』, 1.
- 주재용(1998), 『한국 그리스도교 신학사』, 대한 기독교서회.
- 최재건(2018), 『3·1정신과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한국기독교학회, 『3·1정신과 교회의 미래』, 2.
- \_\_\_\_\_ (2012), 『언더우드의 대학설립』,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 한영제 편(1987), 『한국기독교 문서운동100년』, 기독교문사.
- 한국교회 100주년편집위원회 사료분과위원회(1984), 『대한예수교장로회 100년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기독신문, <https://www.kidok.com>.
- 나무위키, <https://namu.wiki/>.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
-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
-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
- 한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

# The Influence of Christian Missions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Korea

Byung-Ho So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ook at the devaluation of Christianity and its alienation from the people and ask, “What is the meaning of Christianity being introduced into Korean society, and what impact has it had?”.

In the process of accepting Christianity, the analysis focused on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economic and religious situations as acceptance factors. Politically and socially, the pressure for reform and opening by Western powers, the signing of treatie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economic situation, the economic impoverishment suffered by the people of countries that failed to adapt to world historical changes and quickly accept the culture of modernization explained. In addition, referring to the suppression of Catholicism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Catholicism and the failure of the Catholic introduction process in the religious situation, various methods were tried and the situations in which the gospel was gradually spread were explained.

It was pointed out that Christianity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modernization of Korea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including the spirit of patriotism and love for the peopl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between people and books, and the abolition of the caste system. In addition,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e acceptance of Christianity was that it was recognized as a powerful religion that made wealth possible, and thus the gospel expanded from the powerless ruled class to the ruling class. Meanwhile, Christianity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changes in the consciousness of the Joseon people due to Christian missions were examin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ce association branches,

---

\* Professor of Police Department, Baekseok University(E-mail: sbhpol@bu.ac.kr)

differences in active participation, and a confession written by a nobleman. In addition, we looked into the teachings of Christianity, focusing on the subjec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purpose of the movement, and the methods of action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s shown i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ity and the role of the March 1st Movement and Christian schools.

Lastly, it concludes that in the face of the decline of Christianity, which had a great influence during the turbulent times of Korean history, the Korean people need to know and learn about history.

Keyword: Christianity, Christian mission, Christian school, March 1st Movement, Independence Movement